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잘못된 길과 그 결과

(시편 2:1-12)

메시아 시로 알려진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죄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한 시편 1편과 더불어 한 편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이 의인의 길을 말한다면 2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고 그를 떠나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2편은 시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분이 각각 말씀 합니다.

1. 이방 나라,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의 어리석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들이 세상의 왕인 줄로 착각하는 그들은 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3절).

민족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은 온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방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말씀으로 계약하시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 456회 이상 나온 예언과 같이 그리스도는 만국민이 고대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함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행 26:14) 미련한 짐승의 행동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요 1:22). 그리스도를 대적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2.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확정되어 동요하지 않는다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4절).

그는 하늘에서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웃음은 조롱하는 비웃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신 하나님은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시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6절)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3.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 재림하심으로 승리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7절).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상 생애 동안 두 차례(수세 시, 변화 산상에서)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33에서 이를 확인해 줍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세상의 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적 하고 오히려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으로 찢긴 그 손에 입 맞추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의 대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행 13:33).

본문 7절에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히 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골 1:18). 6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과거에 세우셨지만 8-9절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선교적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모든 민족이 복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8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의 후사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죄악의 권세와 하나님의 원수들이 남김없이 부서질 것입니다.

4.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권면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0절).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에게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11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방종에 빠질까 염려하며 기쁨 중에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심이 결여되면 불경죄를 범할 수 있고, 사랑이 제외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심과 사랑이 공존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12절).

입맞춤은 감사와 복종과 환영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로 또한 그를 경배함으로 입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진노를 사게 되고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노와 멸망의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적 하고 오히려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으로 찢긴 그 손에 입 맞추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의 대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2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하나님의 공화를 힘입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입맞춤 하므로 구원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5기 단기선교단 · 농촌전도대 파송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파송식가져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온 제5기 단기선교단과 고향의 들녘에 풍성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농촌전도대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파송받는다.

오늘 파송 받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함께 하도록 기도한다.

제5기 단기선교단 및 농촌전도대 대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5기 단기선교단-28명>

단장: 홍성주 장로 지도: 서명철 목사

손재영 정동호 최치순 이양철 김성주 송한솔 조대선 임중현 노창훈

이승준 이주현 백경원 조남현 구진영 최진경 김지연 김수련 이화용 이승용 주미영 정희정 신은미 안재희 음영경 한정연 조동희

<농촌전도대-46명>

대장: 윤찬오 장로 지도: 이규정 목사

강혜주 김경철 김금준 김길자 김영주 김옥순 김옥환 김은순 김재근 김찬진 문옥희 박영숙 박현영 백영자 서경애 심상필 양춘경 양혜선 오유식 원용범 유수진 유을상 이동만 이동수 이봉선 이승우 이인영 이찬호 이한나 이해순 임명숙 전용순 전원순 정봉금 정효자 주경자 최정운 최지혜 최향봉 한대석 함언호 홍재식 황선철 이성득

2005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확정

9월5일(월) 프로그램별로 일제히 개강돼

2005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9월5일(월)부터 일제히 개강한다.

지역 주민과 성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준비하고 있는 열린프로그램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 수

백 명의 성도들이 강의실을 메우고 있다. 천국시민양성과 만민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금번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프로그램별 개강일시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제18학기 서울성경대학

| 날짜 | 요일 및 시간 | 담당 | 장소 |
|---------|-------------------|--------|------|
| 요한123서 | 월, 오전 10:00-11:00 | 윤영국 목사 | 602호 |
| 마가복음 | 화, 오후 7:30-8:30 | 이태훈 목사 | 602호 |
| 고린도후서 | 목, 오전 6:00-7:00 | 이용식 목사 | 602호 |
| 이사야 | 금, 오전 6:00-7:00 | 한상은 목사 | 602호 |
| 교사양성반 | 주일, 오후 3:20-4:30 | 김운호 목사 | 609호 |
| 교구일꾼양성반 | 주일, 오후 3:20-4:30 | 오정식 목사 | 607호 |

제2기 서울세계선교대학

| 날짜 | 과목 | 강사 |
|-------|------------------|-----------------------------------|
| 9/6 | 선교의 성경적 기초 | 이종윤 목사 |
| 9/13 | 전문인/평신도선교 | 민요셉 선교사(GMF, MAIE 한국지부) |
| 9/20 | 선교학 개론 | 이장호 교수(아신대) |
| 9/27 | 선교하는 하나님 |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삼일총무) |
| 10/4 | 21C 세계선교의 상황과 전략 | 곽재욱 목사(동막교회, 전 러시아, 볼리비아 선교사) |
| 10/11 |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 김종성 선교사(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
| 10/18 | 세계선교 역사 | 남정우 목사(임마누엘교회, 전 총회 러시아 선교사) |
| 10/25 | 총회 선교정책과 현황 | 신방현 목사(총회세계선교부총무, 전 총회 인도네시아 선교사) |
| 11/1 | 선교의 문화적 관점 | 문상철 교수(합동신학대학원) |
| 11/8 | 선교행정과 후원 | 공훈 목사(총회세계선교부간사) |

제10학기 서울주부대학

| 날짜 | 과목 | 강사 |
|-------|-------------------------|------------------|
| 9/6 | 이름다운 신앙의 삶 | 이용식 목사 |
| 9/13 | 독서생활과 독서지도 | 정옥동 장로(전 신흥고 교장) |
| 9/20 |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 이희범 목사(서울평화교회) |
| 9/27 | 미술의 세계 | 전광영 집사 |
| 10/4 | 아외수련회 | - |
| 10/11 | 가정경제와 자녀교육 | 김완진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
| 10/18 | 서울교회와 나의 신앙 | 오정수 장로(영광전자 대표) |
| 10/25 | 건강과 다이어트 | PCK 화장품 강사 |
| 11/1 | 음악, 그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로 | 박정선 장로(단국대 음대) |
| 11/8 | 암 예방과 건강관리 | 나미용 집사(삼성의료원) |

제11학기 슬픔경로대학

| 날짜 | 과목 | 강사 |
|-------|------------------|---------------------|
| 9/8 | 선교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 임광재 목사(말라위 선교사) |
| 9/15 | 노인과 성 | 성경원 박사(한국성교육연구소 소장) |
| 9/22 | 노인의 영양관리 | 나미용 집사(삼성의료원 영양사) |
| 9/29 | 영화상영 | 이남성 집사 |
| 10/6 | 건강체조 | 김희 선생(방배초등학교) |
| 10/13 | 아외수업 | 축령산 휴양림 |
| 10/20 | 세상의 떡잎과 천국의 떡잎 | 하영수 장로(서울교회 장로) |
| 10/27 | 산야초의 효능 | 이재운 집사(향초원 원장) |
| 11/3 | 레크레이션 | 서석정 장로(전 남시중 교장) |
| 11/10 | 경로잔치 | 담당자(찬양 울동 교제) |

교사양성반

| 날짜 | 강의제목 | 강사 |
|-------|--------------------|---------|
| 9/11 | 교회교육의 목표 | 이성득 목사 |
| 9/18 | 구약개설 | 이태훈 목사 |
| 9/25 | 신약개설 | 김운호 목사 |
| 10/2 | 성경적 교회론 | 이용식 목사 |
| 10/9 | 반복회 | 오정식 목사 |
| 10/16 | 교사의 자질 | 김운호 목사 |
| 10/23 | 학생의 이해(발달심리) | 한상은 목사 |
| 10/30 | 학습지도 | 이규정 목사 |
| 11/6 | 교사와 학생(심방, 기도, 상담) | 지혜영 전도사 |
| 11/13 | 예배의 자세 | 윤영국 목사 |

교구일꾼양성반(L.I.C)

| 날짜 | 강의제목 | 강사 |
|-------|---------------|---------|
| 9/11 | 그리스도인도 | 이태훈 목사 |
| 9/18 | 다락방모임의 실제 | 이성득 목사 |
| 9/25 | 성령의 은사체크 | 오정식 목사 |
| 10/2 | 다락방과 교회봉사 | 윤영국 목사 |
| 10/9 | 다락방 전도대 | 이규정 목사 |
| 10/16 | 다락방장의 리더십 | 이태훈 목사 |
| 10/23 | 다락방 모임 시 집단상담 | 이용식 목사 |
| 10/30 | 다락방 성경공부 인도법 | 김운호 목사 |
| 11/6 | 이단연구 | 한상은 목사 |
| 11/13 | 다락방 행정 | 지혜영 전도사 |

제5기 결혼예비학교

| 날짜 | 강좌 | 강사 |
|------|----------------|--------|
| 8/28 | 성경적 결혼관 | 이규정 목사 |
| 9/4 | 신혼의 성스러운 성 | 박정원 집사 |
| 9/11 |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 | 주원순 선생 |
| 9/18 | 결혼과 재정관리 | 김금준 집사 |
| 9/25 | 양가 부모님과과의 관계 | 이현숙 집사 |

천국시민 양성 -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복 (디아스포라부)

이번 수련회를 빌어 먼저 부모형제를 떠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종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플세라 힘들세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저희 디아스포라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잠시나마 어렵고 힘들었던 옛 추억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의 평범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임을 잘 몰랐었습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사 여기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심은 그 크신 뜻이 있을 진데 옛 과거를 잊고 나 하나만 축복받으려고 했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특강 시간에 목사님께서서는 저희에게 대한민국까지 오신 여러분은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은 참으로 잘하고 또 대단히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오셔서 다른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축복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목사님은 자신의 일 인양 기뻐하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이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라 그러면 배운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중국에서 힘들게 살던 때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위험이 닥치면 숨겨주시고 그때그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체험을 하였지만 여기 한국에 와서는 어려우면 불평만 할 뿐 그때 그 시에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날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불어 남에게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에 가장 큰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루어 주신다.> 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지민 (고등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기 전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 첫날부터 참여할 수 있었다. 정말 이번이 내가 고등부에서 보내는 마지막 수련회인 만큼 꼭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녁집회 때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펄펄 흘러내리며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주님의 시간을 체험했고 진짜 막혀있던 구멍이 뚫린 듯이 기도가 잘 되었다.

우리 방에는 고3친구들만 있었다. 우리는 갑자기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다들 모여서 24시간 개방되는 기도실로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난 울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 그리고 19년이라는 시간동안 그걸 모른 채 지내왔다는 생각에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 다들 어떻게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고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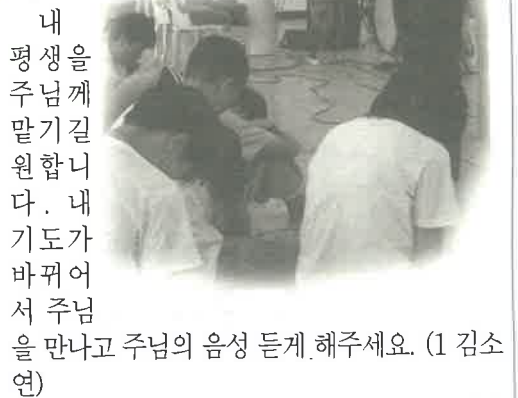
다음날 저녁집회 때도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계속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평소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번 수련회에서는 큰 소리로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에 감사했다. 마음껏 기도했고 찬양했다. 누군가 내게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나는 이번 여름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다고! 나는 고3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 된 우리...언제 지나 잊지 못 할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한 결 단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저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2 김기쁨)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 김 현 지)

내 평생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1 김소연)



주님 저를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성화)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3 강승엽)

저를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태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2 황지혜)

저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께 구한 것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 김지욱) 중학교의 마지막 수련회였는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남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순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주은빈)

주님! 이번 수련회에 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 김세웅)

하나님 앞으로 제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3 박소망)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Thanks to God... (3 신혜윤)

항상 저와 함께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번 수련회 때 마다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기로 다짐했어요. (3 이혜연)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3 백서영)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기도제목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김성주



1.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2.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히 선교할 수 있도록
3. 동아시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4.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김지연



1. 많이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2. 우리 모두 많은 은혜를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3. 선교기간 동안 아픈 사람 없도록 모두에게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조대선



1.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2. 주님의 계획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3. 단기 선교팀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최진경

1. 부족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길
2. 주님 계획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3. 주님께서 모든 것 허락해 주시길. (재정, 건강)



송인술

1. 강건한 영과 육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2.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3.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백경민

1.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많은 사랑을 느끼며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도록
2. 모든 일정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담대하도록
3. 주님만 바라보도록

천국시민 양성

신혼가정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두현 집사(신혼가정부 부장)

8월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알프스펜션에서 열리는 신혼가정부 여름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기도하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부간의 진실한 대화도 나누고, 또한 가족 간의 교제와 섬김, 나눔, 유아들을 위한 이육식 강의도 있습니다.

신혼가정부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혼가정부에 속한 여러분 같이 동행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8월 한 달간 다락방 모임 방학

여름 휴식기를 맞아 8월 첫 주부터 한달동안 다락방 모임을 방학한다. 계속 모이길 원하는 다락방은 다락방 교재를 교회사무국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모이지 않는 다락방은 매주 금요일 전화심방을 하기로 하였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8월1일(월) 한기총 신학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사: 박두영 장로 전행자 권사 가정(1교구) 대치동 939 T. 557-7004
- 주간식당 봉사: 모세남선교회(7월31일) 도르가여전도회(8월 7일)
- 금주의 식사: 이경구 집사 이채봉 집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 |
|-----|---|
| TV |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 라디오 |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정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 인터넷 |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

2005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8월14일(주) 찬양예배 시 장학금 수여

우리교회는 천국일꾼을 더욱 많이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학기에 이어 금번 2학기에도 장학생을 심사-선발하여 발표하였다. 2005학년도 2학기 장학생은 중등부-5명, 고등부-6명, 대학부-5명, 디아스포라부-2명, 청년부-3명, 김복녀 권사 장학생-2명이 선발되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수련회 장소 제공 등 많은 도움을 준 평택 진위고등학교(교장: 권혁우 집사)에 장학금을 드리기로 하였다.

부서별 장학생의 명단은 우측과 같다.

<중등부>

김명현, 박노영, 유희상, 이선우, 최혜진

<고등부>

고요한, 김진영, 박유나, 박한샘, 송형호, 최인애

<대학부>

강혜주, 김민욱, 김지연, 박성우, 조광희

<디아스포라부>

오태봉, 조미향

<청년부>

박준희, 이용필, 장은규

<김복녀 권사 장학생: 신학생>

손재영, 서흥위

장로부부 수련회

8월15일(월) 안산공과대학에서

장로부부수련회가 8월15일(월) 1일 수련회로 이종운 목사, 김영한 목사, 이승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다.

이날 선발된 선교사들의 사역보고 및 간증의

시간도 갖는다.

장로수련회 장소는 안산공과대학(이사장: 장인원 집사) 캠퍼스이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가지 행사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체 하소서
4.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를 위하여
5. 노사간의 갈등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 일 예 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영 어 예 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 |
| 수 요 예 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 요 기 도 회 | 오 후 9시 30분 |
| 세 벽 기 도 회 | 매 일 새벽 5시 30분 |

■ 교외오시는 길

